

박완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위해 머리 맞댄다

(경상남도 도지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서 전략회의 13개 방산기업·9개 협력기관 논의 기업 애로 청취 후 대정부 건의

경남도가 대한민국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 도약을 위한 경남의추진 전략 구상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22명의 방산기업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는 지난해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인 173억 달러의 성과를 이어가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의 추진 전략 구상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코오롱테크컴퍼지트, SNT다이내믹스, SK오션플랜트, 한국화이바, 두원중공업, 이엔코리아,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쉐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김 등 방산기업 13개사가 참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 방위산업 수출 전략회의의 주제

기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 경남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수출입은행 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등 11개 협력기관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방위산업은 기계산업에 IT, AI 등이 융체된 모든 산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경남이 방위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면서 "경남 방위산업의 장기적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남도와 연구기관,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3개 방산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계약법 조속 제정', '절충교역 가치승수 중소기업 확대',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 확대', 'MRO산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건의사항이 제시했다.

전략회의에서 협력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과 정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방산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방위산업의 수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하며 향후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와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 지원'을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제도 개선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경우,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이 확보됐고,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건은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 '방산수출 기획팀(가칭)' 신설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중소 수출직불금' 10억 지원

전남도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전남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남해관광문화재단

DMO육성지원 평가 전국 1위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2022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육성사업'에서 전국 총 10개 지자체 가운데 S등급, 종합 1위로 한국관광공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경쟁한 이번 평가에서는 관광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DMO 사업 운영 및 지역관광 기여도 등 15개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재단은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남=이도식 기자

영천시

챗GPT 활용해 행정혁신 추진

영천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자체의 업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계획을 선보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챗GPT를 활용한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여 영천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도자료, 인사말 등 홍보자료 및 내부보고의 기초자료를 생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의 불필요한 작업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영천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로, 영천시의 디지털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상주시

취업취약계층 236명 선발

상주시가 '2023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연간사업비 1101백만 원을 투입해 참여자 236명을 선발한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각 4개월간 시행된다. 상반기 참여자는 공공근로 39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83명으로, 환경정비·행정보조 등 총 47개 사업(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본 작업장에서는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응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물품을 제작하여 상주시민 및 필요시설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글로벌 부산웹툰 작가들 기타큐슈서 'K웹툰' 뽐내

이아영·박시온·김기백 작가 선발
기타큐슈 배경 웹툰 그리고 출판도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정문섭)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부산 지역 웹툰 작가 3인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기타큐슈 지역에 파견되어 현지 취재를 통한 작품 제작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8년부터 일본 기타큐슈 만화박물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작품 교류를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일본 작가 3명이 부산에 파견되어 부산 브랜드 웹툰 6개 작품을 제작했으며, 당시 함께 참여했던 부산 지역 작가들의 작화 실력을 인정받아 만화박물관 관계자가 올해 기타큐슈를 배경으로 한 웹툰 제작을 제안했다.

이번에 선발된 이아영 작가, 박시온 작가, 김기백 작가는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부산 지역 활동 작가들로 주력 장르는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하다. 완성작품은 기타큐슈 만화박물관에서 출판된다. 일본 국제만화가대회에 기획 전시될 뿐만 아니라 K-TOON 플랫폼에도 연재될 예정이다.

또한 정규하 작가를 포함한 부산 지역 작가 7명의 작품 20점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되는 한국영화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화와 웹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탈리아



김우섭 작가의 '샤크' 표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정규하(Q-HA) 작가의 작품과 함께 영상화된 부산 지역 웹툰이 대거 전시된다.

이번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개막작 '한산'과 관련해 정규하 작가의 '노랑'이 전시되며, 정규하 작가의 작품과 함께 김우섭(샤크), 오영석(독고), <통>, 김태건(강철비), <아리둥라스트 카우보이>, 오수민(심야카페), 남정훈·김태현(제7원), 이성규(바리) 등 부산 지역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렌체 만화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하 작가의 마스터클래스도 기획되어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올해 첫 추경 2.7조 편성

경북 포항시는 총 2조 7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940억 원(4.19%)이 증가한 2조 3390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550억 원보다 60억 원(1.69%)이 증가한

361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259억 원, 순세계영여금 547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특별교부세 34억 원 등이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안전 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직제 개편부서 예산 등을 조정·반영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울산시, 태화강 수상레저 성지 만든다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건립 본격화
하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완공

울산시가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울산시는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진행 중이다.

'태화강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은 민선 8기 '야외체육시설 조성' 공약의 3가지 이행계획 중 하나다.

체험센터 건립은 일반인에게는 카

누, 카약, 조정, 패들보드 등의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동호인 및 전문체육인에게는 수상스포츠 훈련장을 제공하고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21년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하고 있다.

올해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봄철 산불방지 선제 대응 나서

경북도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6일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영상회의

를 개최했다. 이 도지사는 한식·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 대응과 피해 최소화해 안전을 기할 것을 부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